

단국대학교 2020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수험번호	
성명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십시오. (30점)

-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200자 내외) (10점)
-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십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은 크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나뉜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나 사회 변동과 같이 사회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폭넓게 탐구하려는 반면, 미시적 관점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을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과 행위의 의미에 초점을 두어 탐구하려고 한다.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은 흔히 숲과 나무를 관찰하는 태도에 비유한다. 전체적인 숲의 규모나 산의 높이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 거시적 관점이라면 그 숲에는 주로 어떤 나무가 자라며 그 생김새는 어떤지 숲 속을 자세히 관찰하려는 것이 미시적 관점이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볼 때 거시적 관점에서는 한 사회의 전체 흐름과 구조, 사회 조직과 제도의 변화 추이 등에 관심을 둔다면, 미시적 관점에서는 그런 조직과 제도가 개인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방식과 그런 방식이 개인의 삶에 끼치는 구체적인 영향 등에 주목한다.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은 다양한 학문 영역에도 적용된다. 심리학에서 거시적 관점은 인간의 심리 현상을 사회적 관계 혹은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미시적 관점의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를 주로 독립된 개체들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경제학에서도 거시 경제학은 국가 전체 단위에서 생산, 소비, 소득, 실업률, 물가 등의 문제에 접근한다면, 미시 경제학은 개별 주체로서의 경제인들, 즉 생산자와 소비자에 초점을 맞추어 일상적이고도 세부적인 경제 현상과 움직임을 분석한다. 거시적 관점이 어떤 대상 전체를 총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미시적 관점은 어떤 체제가 구체적으로 가동되는 세부적인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우리가 나무만 볼 때 숲을 보지 못하며, 숲만 볼 때 나무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은 서로 상대적이면서도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거시적인 것이 실천되는 공간이 미시적인 것이라면, 미시적인 것의 종합과 축적이 거시적인 것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출처 : 강운선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출제진 추가 집필)

[나] 축제는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나 시기를 기념하여 행해진다. 서양에서는 추수 감사절이나 성탄절을 기념하여 축제를 여는 경우가 많으며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농작물의 수확이 끝난 시기에 마을 축제가 여기저기서 열렸다. 축제 기간에는 많은 놀이와 경연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스트레스를 풀고 생산 활동을 위한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된다. 그러나 축제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축제를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면서 공동체 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다지게 된다. 실제로 매년 2월 말부터 3월 초에 거행되는 브라질 삼바 축제는 계급과 인종, 경제적 빈부 등의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브라질 사람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많은 축제들이 현재의 지배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의 스와질란드에서는 추수 감사 축제가 열린다. 그런데 이 축제는 현재 지배 체제의 신성함과 절대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체제에 대한 불만과 전복의 욕구를 의례의 형식을 통해 표출하게 하며, 급격한 체제 전복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상징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수 감사 축제 외에도 많은 축제들이 지배 집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실시되고 있다. 지배 집단의

목적은 축제를 통해 피지배 계층의 불만을 잠재우고, 이들의 정치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자신들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있다.

이와 달리 축제는 권위적인 체제나 권력에 대한 도전의 의미로 이해되기도 한다. 축제의 공간에서는 평소에 억압되고 주변화되었던 목소리들이 해방된다. 일시적이지만 신분적 위계와 사회적 규범들은 조롱되고 희화화된다. 예를 들어 중세에 유행했던 ‘카니발’이라는 축제에서, 왕은 거지가 되고, 거지는 왕이 되기도 하며, 현자가 바보가 되고, 바보가 현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축제는 민중의 해방된 웃음으로 가득 찬다. 우리나라의 탈춤도 지배 계급인 양반 혹은 불교 승려에 대한 풍자를 통해 민중적 해학을 보여주기도 한다. 축제는 이렇게 “유쾌한 상대성”을 만들어내는 민주주의의 기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출처 : 신형민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출제진 추가 집필)

[다] 나를 당혹케 하는 질문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왜 내 만화에 장애인에 관한 내용이 없느냐 하는 것이다. 초기 전시 때에 그렇게 물어 오는 사람이 있었다. 장애는 내 개인의 경험이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삶에 평생 영향을 끼치는 어떤 상처를 마음속의 트라우마로 품고 살아가듯 나에게 있어 장애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다 똑같은 내용과 형태가 아니듯이 장애도 남들과 겹치지 않는 한 개인의 경험이다. 내 만화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만한 내용을 풀어낸 작품이니 장애는 내 만화의 중심 맥락이 되지 않는다. 장애인 만화가이니까 장애인의 아픔을 호소해야 한다는 시각은 타인들의 일방적인 생각일 따름이다. 내가 지닌 개인적인 상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내고자 매달릴 필요도 없고 굳이 손 내밀 일도 아니다. 그래서 처음 카툰을 그릴 때에는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는 심정으로 의도적으로 내 모습을 작품에 넣지 않았다.

내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타인들이 사고를 강요하는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다. 인터뷰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곧잘 보여 주는 분위기나 질문에는 세상에 알려졌으면 나와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왜 여기에 가만히 있느냐는 고압적인 뜻이 때때로 느껴진다. 40년간 격리된 환경 속에서 살아온 나에게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 볼 용기도 내지 못하느냐는 질문은 씁쓸한 심정을 안겨 준다. 그들이 어디에서 무얼 하며 살아왔든, 나는 한곳에서 지금껏 고정된 틀에 매여 살아왔다. 그런 틀에는 그 세월만큼의 과정과 원리가 존재한다. 그것을 한 번의 변화로 끊어 내라고 하는 건 조금 무리하고 잔인한 부탁 아닌지. 멀쩡한 사람 중에도 절로 들어가거나 수도사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왜 나는 은둔하면 안 되는가. 성철 스님처럼 면벽 수련의 대의를 품어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자신만의 삶을 사는 은둔형 삶을 누리는 식의 선택도 일반인만을 위해 존재하는가. 장애인들이 세상에 나와 그 실정을 보여야만 사회의 관념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타인의 틀에 박힌 세계관에 꼭두각시처럼 부림을 당하지 않으려는 마음인 것이다. 내 자신의 의지로 활동하고 싶고,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싶다.

*이 글은 카툰리스트 지현곤의 수필임.

출처 : 박영목 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문제 2] [가]와 [나]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가]와 [나] 각각의 입장에서 [다]에 대해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즉 초유기체(꿀벌과 개미처럼 여러 개체가 모여서 하나의 큰 사회를 이루고 있는 곤충을 사회성 곤충이라고 하며, 사회성 곤충을 이루는 집단은 완전한 하나의 생물체처럼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데, 이를 초유기체라 한다.)로 여기는 관점이 있다. 사회가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특성을 가진다면 사회의 발달 과정 역시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이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생물체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해 왔듯이 사회도 단순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진화되어 갈 테고, 쥐가 고양이의 먹이가 되고 정어리가 갈매기의 먹이가 되듯이 단순하고 약한 동물은 복잡하고 힘센 동물의 먹이가 되고, 사회적 약자는 권력과 힘을 가진 이에게 늘 수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출처 : 한철우 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출제진 재구성)

오늘날의 디즈니 제국을 세운 월트 디즈니(Walt Disney, 1901~1966)와 맥도날드 황제 레이 크록(Ray Kroc, 1902~1984)은 모두 미국 일리노이주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알고 지냈다. 이들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야전 의무대에서 함께 복무한 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업을 할 때에도 내내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둘 다 고등학교 중퇴자이며 후에 자신들의 회사에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인 직원 교육기관을 세웠다는 것도 똑같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주력했고, 나중에 사업 차원을 넘어서 미국 문화, 아니 전 세계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똑같다. 또 디즈니랜드에선 맥도날드를 팔았으니 사업에서까지 돈독한 우정을 유지한 셈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세상과 경쟁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도 똑같았다. 디즈니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잊지 마시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것이 자연법칙입니다. 어떤 빌어먹을 이상주의적인 계획이 등장한다고 해도 이 법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1972년 크록은 패스트푸드 사업에 대해 고차원적인 해석을 늘어놓는 기사를 이렇게 비웃은 적이 있다.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한 동족살육의 게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죽여야 하는 이 일은 산업이라기보다는 약육강식의 미국적 해석이라 불러야 할 겁니다." 심지어 크록은 경쟁자들에 대해 이런 말까지 했다. "만약 그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난 그 입에 호스라도 집어넣을 것이다."

.....중략.....

디즈니와 크록의 경쟁관은 두 기업의 관리법까지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 공통된 핵심은 효율성, 계산가능성, 예측가능성, 통제다. 미국 메릴랜드대학 사회학 교수 조지 리처(George Ritzer)는 맥도날드로 대표되는 패스트푸드점의 원리가 미국 사회와 그 밖의 세계의 더욱 더 많은 부문을 지배하게 되는 과정을 맥도날드화라고 불렀는데, 맥도날드화는 디즈니화라는 말로 교체 가능하다.

출처 : 강준만, 『재미있는 영어 인문학 이야기』 3 (출제진 재구성)

[나] 유성 생식(有性生殖)을 하는 생물체는 암수 유전자를 섞어야만 후손을 낳을 수 있는 특성상, 조금씩 다른 자손을 낳는다. 이 자손은 각자 환경에 기대어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서 주변 환경에 조금 더 잘 적응한 개체는 살아남아 자신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커진다. 초기에는 이 변이로 인한 차이가 거의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지만, 오랜 세월

동안 변이가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그 생물종의 특징으로 자리잡게 된다.

다윈은 이러한 변이가 쌓여 점차 환경에 더 잘 적응된 방식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잘 적응한 방식’이 오로지 ‘한 가지 방식’뿐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오히려 자연 선택의 타당성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윈은 “변화는 생명체가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서, 번식 행위를 통해 우연히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 신의 의지 같은 어떤 외부의 힘이 개입하여 작용하지 않으며, 모든 생물체는 우열이 없다.”라고 썼다.

.....중략.....

갈라파고스 군도에는 모두 13종의 핀치가 서식하는데, 이들은 크기나 습성 등은 비슷하지만 부리의 모양은 천차만별이었다. 이들 핀치는 저마다 독특한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양은 그들이 주로 먹는 먹이와 관련이 있었다. 예를 들어, 나무껍질 안쪽에 숨어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 핀치는 단단한 나무껍질 속에 부리를 밀어 넣고 벌레를 찌어 올리기에 유리한 긴 주삿바늘처럼 생긴 부리를 가지고 있고, 견과류나 씨앗을 주식으로 삼는 핀치는 단단한 껍질을 부술 수 있는 튼튼하고 강한 지렛대 모양의 부리를 가지고 있었다.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13종의 핀치는 모두 부리의 모양이 달랐고, 그 부리들만큼이나 그들의 먹잇감도 달랐다.

다윈은 다양한 핀치의 부리 모양과 먹이의 관계를 관찰한 결과, 13종의 핀치는 원래 하나의 종이었으나 오랜 세월 저마다 처한 환경에서 가장 능률적으로 구할 수 있는 먹잇감을 찾는 동안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핀치들이 하나의 우수한 종으로 통합되는 쪽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양한 종으로 쪼개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먹잇감 역시 구하기 쉽고 찾기 쉬운 한 종류로 모아지지 않고, 다양하게 세분화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만약 13종의 핀치가 모두 한 가지 먹잇감에만 집착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먹잇감이 부족해져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핀치의 수는 훨씬 적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13종의 핀치는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작은 곤충, 큰 곤충, 날아다니는 곤충, 나무껍질 안쪽에 숨어 있는 곤충, 딱딱한 씨앗과 부드러운 열매 등 종마다 다양한 먹잇감을 택하는 전략을 취해, 같은 먹이 사슬 안에서 종끼리 경쟁하지 않아도 되었고, 결과적으로 제한된 서식지 안에 더 많은 수의 핀치가 살아갈 수 있었다. 이처럼 진화에 있어 가장 큰 무기는 다양성의 증가다.

출처 : 한철우 외,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다] 1997년 개봉한 영화 ‘가타카(GATTACA)’의 제목은 DNA의 염기 서열인 A, T, G, C의 철자로 만들어졌다. 이 영화가 그리는 미래 사회에는 유전자가 인간의 직업과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인간의 유전자 조작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 가상의 미래 사회는, 열성 인자가 제거된 인공 수정을 통해 우성 인자만을 지니고 태어난 ‘엘리트 아이’들이 지배 계층을 이루고, 자연 수정을 통해 배합된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나는 ‘신의 아이’들은 이 지배 계층의 통제와 감시를 받는, 철저한 계급 사회다. 영화는 이 ‘신의 아이들’ 계급과 ‘엘리트 아이들’ 계급의 각각의 운명에 대해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주인공 빈센트 프리먼은 자연적인 유전자 조합을 가지고 태어난 신의 아이다. 빈센트의 유전자 분석 결과는 그의 심장 질환 조기 발병과 범죄자로서의 성장과 31세 경의 사망을 예측했다. 어린 시절부터 우주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던 빈센트는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주 비행사가 되는 꿈을 갖는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 그는 우주 비행사가 되는 그 어떤 시험이나 면접도 통과하지 못하는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고 집을 나선다.

청소부 생활을 전전하다가 우주 탐사팀을 보내는 회사인 '가타카'에 청소부로 입사한 빈센트는 자신의 유전자에 의해 예견된 미래에 반기를 들고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 위험한 도박을 시작하는 내용이 전반적인 영화의 스토리이다.

도덕과 윤리, 인간의 존엄성 위에 우월한 유전자를 배치한, 가타카의 미래 사회가 벌써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지난 11월 27일 중국의 한 과학자가 세계 최초의 유전자 조작 신생아를 낳는 과정을 주도했다고 밝혀 엄청난 논란을 낳고 있다. 중국 선전시 남부과학기술대의 허젠쿠이(賀建奎) 박사는 바로 3세대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 유전자를 조작한 체외 수정 배아를 제3의 산모에게 착상시키고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하는 과정을 도왔다고 발표했다.

만약 이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는 생명공학이 금기로 여기던 경계 한쪽을 뛰어넘어선 전무후무한 사건에 해당된다. 게다가 이 연구 결과가 정식 논문 출간 혹은 발표나 검증 과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 유전자 가위 관련 학회의 강의 중에 흘러나온 소식을 기자가 기사화한 것이어서 더 큰 혼란을 야기했다.

어느 특정 유전자의 염기 서열에 돌연변이가 생겨 해당 유전자의 산물인 단백질 기능이 크게 바뀌면 유전 질환으로 이어진다. 수 천 개의 염기 서열에서 단 하나의 염기 돌연변이로도 심각한 유전 질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단 하나의 염기 돌연변이인 '점 돌연변이'*의 염기를 정상으로 바꾸도록 교정할 수 있고, 이를 수정란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교정한다면, 유전 질환을 지닌 사람을 애초에 교정할 수 있게 된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유전자 가위로 염기 서열을 변형하고 원하는 염기로 바꾸는 기법이다. 유전자 가위 기술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유전자 가위 염기 편집은 미래의 안전하고 유용한 유전자 치료술로 발전할 수 있을까? 여러 논란 중, 이번 중국 과학자의 이 사건은 과연 인간 수정란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의 권리로 다른 사람의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지, 유전 질환뿐만 아니라 정상인 수정란에 잘못 적용되어 일명 '디자이너 베이비'의 대량 배출 가능성은 없는지에 관한 뜨거운 논의를 부추기게 됐다.

.....중략.....

인간의 유전자를 앞에 두고 어떤 유전자가 정상이고 어떤 유전자가 비정상인가? 어떤 사람이 정상이고 어떤 사람이 비정상인가? 다수라고 해서 더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현대 사회의 상류 계층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능력을 부과해 주는 유전자라고 한다면 과연 더 우월한 유전자인가? 의사결정의 능력이 없는 수정란 단계의 개체에 유전자 편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권리로 가능한 것인가?

날이 갈수록 유전체 검사 비용은 점점 더 저렴해지고 일반인의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와 있다. 이제는 누구나 본인의 유전체 검사를 쉽게 의뢰하고 분석 결과를 가까이 할 수 있게 됐다.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는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가 많은 이들의 건강 정보, 질병 관리, 심지어 일상 영위의 결정들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영화 가타카가 과장되게 그렸던 미래의 어느 날이 이제는 더 이상 과장된 미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시대의 초입에 우리 모두가 있다.

* 점 돌연변이 : DNA에서 염기 하나가 바뀌어서 발생하는 돌연변이

출처 : 『메디게이트뉴스』, 2018.12.14.

[문제 3] [가]의 관점을 바탕으로 [나]와 [다]를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라]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십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 현상 속에서 규칙성을 찾기 위한 노력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 이 같은 노력을 과학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콩트(Comte, A.)이다. 그는 자연 과학의 방법을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에 도입해 사회·문화 현상에서도 규칙적인 이론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콩트의 노력은 사회 과학을 철학과 구분되는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으로 만들었다. 사회 과학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으로 점차 분화되었다. 정치학은 권력의 형성과 행사, 공공 정책의 결정 과정 등을 연구하며, 경제학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 및 소비 과정을 연구한다. 사회학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행위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은 보다 전문화된 영역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학은 도시 사회학, 농촌 사회학, 범죄 사회학, 노인 사회학 등으로 분화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 학문의 탐구 결과를 가지고는 사회·문화 현상 자체를 서로 다른 것처럼 생각하기 쉽고, 복합적인 사회·문화 현상을 단편적이고 일면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간학문적 접근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간학문적 접근에서는 복합적인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다양한 학문적 관점과 탐구 방법을 종합한 총체적 연구를 중시한다.

출처 : 신형민 외, 『사회·문화』 (출제진 재구성)

[나]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일곱 달 아기 엄마 구자명 씨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줄기 시작한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고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 씨,
 그래 저 십 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 물린 시간이고
 또 저 십 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이고
 그래그래 저 십 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집 속에 흔들리는 팬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명에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기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 든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출처 : 조정래 외, 『고등학교 문학』

“경희도 이리로 나오기로 했는데 어쩐 일일까?”

희숙이 하품을 하며 시계를 보았다.

“경희?”

“왜, 경희 몰라? 얼굴이 예쁘고 송곳니가 하나 더니고, 너처럼 부끄럼을 유별나게 타던 애 말야. 옷을 땀 더니가 부끄러워 손으로 가리는 버릇이 있었지. 총각 선생이 뭘 물으면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엉뚱한 대답을 해서 별별 소문을 다 뿌리던 애 말야.”

“개 여전하단다. 여전히 젊고 예쁘고 부끄럼 잘 타고, 시집을 잘 가서 고생을 몰라서 그런지 무슨 애가 고대로야.”

나는 느닷없이 경희에게 강렬한 적개심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껴 보는 격하고 싱싱한 느낌이 었다. 빨리 보고 싶었다. 경희를, 부끄럼 타는 경희를 보고 싶었다. 나는 마치 경희가 이 세상의 부끄럼 타는 마지막 인간이라도 되는 듯이, 지금이 바로 그 사라져 가는 표정을 봐 둘 마지막 기회라도 되는 듯이 초조했다.

“왜 이렇게 안 올까? 집으로 전화 연락 좀 안 될까?”

전화를 걸고 돌아온 영미가 약간 아니꼬운 듯이 입을 비죽대며

“저희 집으로 다들 오란다. 뭐 귀한 손님이 오셔서 못 나왔단나. 귀한 손님이라야 뻥하지. 와 이로 가져온 손님일 거야. 가자, 가서 점심이나 얻어먹자. 개 속셈 뻥하지 뭐. 아마 저 잘사는 거 자랑시키려고 그러는 걸 거야.”

누구라면 알 만한 고위층에 속하는 남편을 가졌다는 경희는 그 나름으로 선망과 질투의 대상인 성숙이었다.

출처 :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다] ◆ 2018년 세계 경제 포럼(WEF) 세계 성(性) 격차 지수 (149개국 대상)

국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니카라과	르완다	뉴질랜드	필리핀	아일랜드	나미비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2	14	15	51	103	108	110	115
점수	0.86	0.84	0.82	0.81	0.80	0.80	0.80	0.80	0.80	0.79	0.78	0.77	0.72	0.67	0.67	0.67	0.66	0.66

출처 : Global Gender Gap Report 2018, WEF

세계 여러 나라의 성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성 격차 지수라는 것이 있다. 성 격차 지수는 세계 경제 포럼(WEF)이 발표하는 것으로 여성의 정치적 권한, 경제 참여와 기회, 삶의 방식 등의 부문에서 남녀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한 것이다. 이 점수는 완전 평등 상태가 1, 완전 불평등한 상태가 0점으로 표시된다.

출처 : 구정화 외, 『사회·문화』 (출제진 재구성)

[라] ◆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3개국 대상)

국가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한국
순위	47	78	39	30	165	62	16	121
여성 국회의원 비율(%)	30.9	23.5	32.0	35.7	10.2	26.9	39.7	17.1

자료 : 국제의회연맹보고서, 2019년

출처 : 『중앙일보』, 2019. 3. 7.

◆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 (남성 노동자의 임금을 100%로 할 때)

연도	2009	2010	2011	2012
임금 수준(%)	62.3	61.6	62.1	61.3

자료 : 한국 노동 사회 연구소, 2012년

출처 : 이진석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 직원 1000명 이상 기업 직급별 남성 비율

직급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남성 비율(%)	66.8	79.2	88.6	93.1	95.8	95.3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여성관리자패널조사』

◆ 남성과 여성의 고용 비율

연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남성의 고용 비율(%)	70.7	71.6	70.1	70.5	70.8	70.8	71.4	71.1
여성의 고용 비율(%)	47.0	48.4	47.8	48.1	48.4	48.8	49.5	49.9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8등신의 날씬한 여성, 눈이 크고 코가 오뎅한 여성 캐릭터, 분홍색 옷을 입은 양전한 여자와 이와 파란색 옷을 입고 씩씩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남자아이... 미디어는 차별을 답습하고, 강화하고, 확산한다. 주로 특정 성별에 대한 역할과 고정관념을 그대로 재현하면서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지난해 펴낸 '2018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내는 영웅적 면모를 보여주는 주인공 캐릭터는 대부분 남성이 담당하고 있다. 여성 캐릭터는 주로 돌봄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보다 사소한 사건에 투입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짚은 바 있다.

출처 : 『한겨레』, 2019. 3. 21.

◆ 4년제 대학 여성 졸업생의 키에 따른 취업률 비교

키	157.0cm 이하	166.8cm 이상
졸업 당시 취업률(%)	36.1	65.3
졸업 당시 양질의 일자리* 취업률(%)	4.2	20.0

* 여기서 '양질의 일자리'란 300인 이상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정규직을 나타낸다.

출처 : 『서울신문』, 2018. 1. 8.